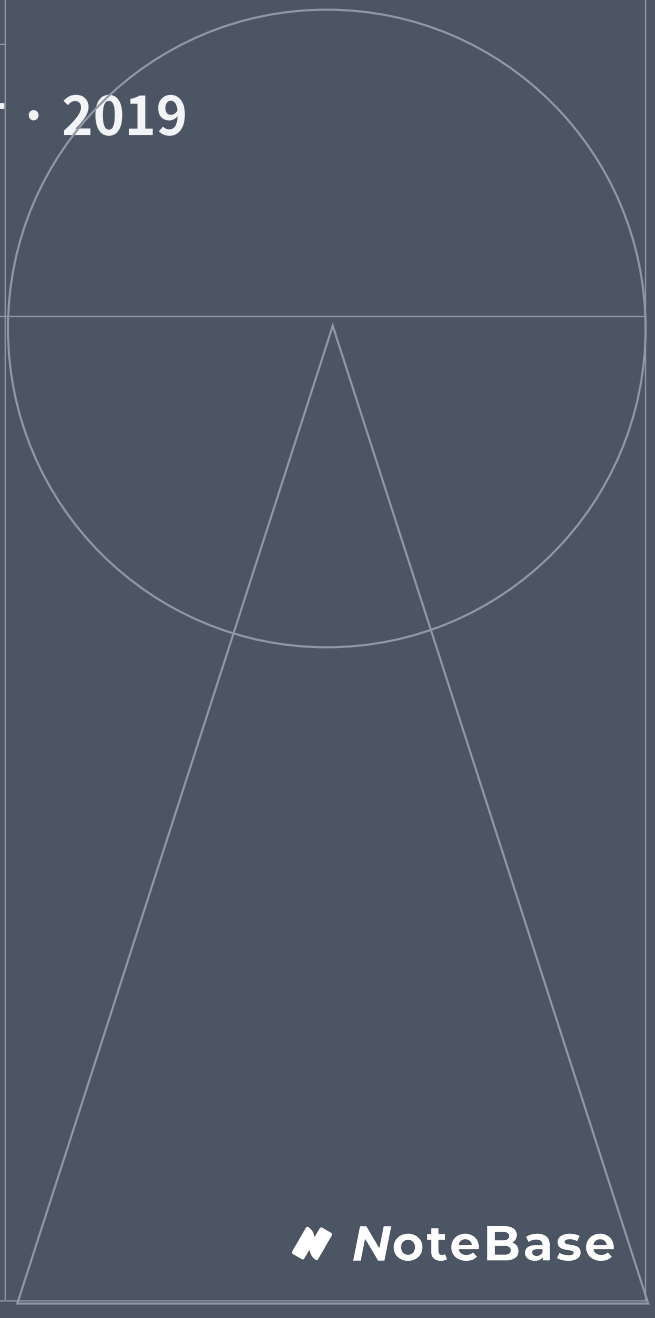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9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9

문 1.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③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④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가장 많이 의존한다'는 설명과 달리,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직접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투자자와 채권자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맡겨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는 **수탁책임의 이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며, 앞으로도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O: 일반목적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자원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을 매수·보유·매도하거나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러한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③ X: 경영진도 기업의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직접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는 표현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로 고쳐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직접 요구하기 어려워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는 주요 이용자는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이다.

④ O: 재무보고서는 모든 금액과 상황을 확정적으로 서술할 수 없으므로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추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정과 판단에 기초한다는 사실만으로 재무정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②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③ 검증가능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표현충실성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검증가능성은 표현충실성의 구성 특성이 아니라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표현충실성을 이루는 특성은 **완전성·중립성·오류 없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이는 목적적합성을 특정 기업의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해당 정보의 성격이나 금액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다.

② O: 목적적합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예측가치는 미래 결과를 예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질이고, 확인가치는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질이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둘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③ X: 표현충실성은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 구성 특성은 **완전성·중립성·오류 없음**이다. 검증가능성은 지식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해당 표현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합의할 수 있음을 뜻하며, 완전한 의견 일치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표현충실성의 구성 특성이 아니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분류한다.

④ O: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표현하여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이다.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 이해가능성은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과 함께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하는 질적 특성이다.

NoteBase

문 3.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② 역사적 원가를 측정기준으로 사용할 때,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③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④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공정가치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이 문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준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이다. 역사적 원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다른 측정기준도 함께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 문항이 전제하는 종전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려면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원가나 가치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할 당시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취득하면 그 지급액을,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면 취득 당시 그 대가의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는 취득원가를 정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산 자체를 이후의 공정가치로 계속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③ O: 계속기업 가정은 기업이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 규모를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계속기업 가정과 다른 작성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④ X: 종전 개념체계에서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선지의 '공정가치'를 '역사적 원가'로 고쳐야 한다. 다만 모든 항목에 역사적 원가만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측정기준과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NoteBase

문 4.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무제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및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한다.

④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면 **1년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이유와 표시된 금액이 완전히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가 투자나 대여 등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부담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재무상태, 일정 기간의 경영 결과인 재무성과, 현금흐름 등을 통한 재무상태의 변동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한다.

② X: 전체 재무제표는 비교정보를 포함하여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보고기간이 언제나 1년 이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면 1년을 초과하거나 1년보다 짧은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재무제표가 대상으로 하는 기간과 함께, 그 기간을 사용한 이유 및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히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기간의 길이가 달라지면 수익·비용 등 기간별 금액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 O: 재무제표는 자산·부채·자본, 차익·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비용, 소유주로서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출자·배분 및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한다. 자산·부채·자본은 재무상태를, 수익·비용은 재무성과를 설명한다. 소유주의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은 **수익·비용과 구별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므로 별도로 파악한다.

④ O: 수탁책임은 경영진이 위탁받은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고 운용한 결과에 대해 지는 책임이다. 재무제표는 자원의 보유 상태와 운용 성과 등을 보여 주므로, 정보이용자가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행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이 20×1년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 결과 20×1년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각각 ₩50,000, ₩20,000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변경이 (주)한국의 20×1년 기초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기초이익잉여금: ₩50,000 감소 / 당기순이익: ₩20,000 감소

② 기초이익잉여금: ₩50,000 증가 / 당기순이익: ₩20,000 감소

③ 기초이익잉여금: ₩50,000 감소 / 당기순이익: ₩30,000 증가

④ 기초이익잉여금: 영향 없음 / 당기순이익: ₩30,000 증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초재고자산의 50,000원 감소는 과거 손익의 누적효과이므로 **기초이익잉여금을 50,000원 줄인다**. 당기에는 기초재고 감소로 매출원가가 50,000원 줄고 기말재고 감소로 20,000원 늘어, 순액으로 매출원가가 30,000원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30,000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기초이익잉여금: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의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이므로 **새 방법을 과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보아 소급적용**한다. 20×1년 기초재고자산은 전기 말 재고자산이므로, 그 금액이 50,000원 감소한다는 것은 과거에 인식한 매출원가가 누적하여 50,000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과거 이익의 누적액도 그만큼 줄어들므로 20×1년 기초이익잉여금은 50,000원 감소한다.

매출원가: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이다. 판매할 수 있는 재고의 원가에서 기말에 남은 재고의 원가를 빼서 판매된 재고의 원가를 구하는 관계이다. 평가방법 변경은 당기매입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초재고자산의 50,000원 감소는 매출원가를 50,000원 줄이지만, **기말재고자산의 20,000원 감소는 매출원가를 20,000원 늘린다**. 따라서 매출원가 변동액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므로, 매출원가는 30,000원 감소한다.

당기순이익: 매출원가가 30,000원 감소하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 20×1년 당기순이익은 30,000원 증가한다. 기초재고자산 감소의 과거 누적효과는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당기순이익에는 기초·기말재고 변동의 차이**를 반영한다. 기초이익잉여금 50,000원 감소와 당기순이익 30,000원 증가는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유·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에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③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할 때 비교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④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무형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활성시장을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활성시장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대신 사용하여 재평가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무형자산의 재평가금액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하며, 이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참조하여 측정**해야 한다. 활성시장은 가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만큼 거래가 충분한 빈도와 규모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전문가가 가치를 추정할 수 있더라도 활성시장이 없으면 그 감정가액만으로 무형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다.

② O: 자산의 재평가로 자본에 누적된 재평가잉여금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하여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이는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 자본 내 대체**이므로, 이 대체 자체가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총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③ O: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의 변경은 일반적인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한다. 즉, 처음부터 원가모형을 적용한 것처럼 비교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자산 장부금액과 관련 자본 등을 조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이러한 자발적 변경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당화되며, 소급적용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④ O: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이지만, **일반적인 소급적용의 예외**이다. 과거 기간까지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재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는 ③의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년부터 상품 A(단위당 판매가 ₩100,000, 단위당 매입원가 ₩60,000)의 위탁판매를 시작하면서, 수탁자에게 단위당 ₩10,00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A는 100개이며, 적송운임 ₩40,000은 (주)한국이 부담하였다. 수탁자는 이 중 50개를 20×1년에 판매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상품 A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이익은?

① ₩ 1,460,000

② ₩ 1,480,000

③ ₩ 1,500,000

④ ₩ 2,96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적송운임은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므로, 판매된 50개에 해당하는 20,000원만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매출액에서 상품원가와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당기이익은 1,480,000원이다.

계산 과정

위탁판매에서는 상품을 수탁자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매출을 인식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외부 고객에게 판매한 수량**을 기준으로 위탁자인 (주)한국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따라서 20×1년 이익 계산에 반영할 판매수량은 적송한 100개 중 50개이다.

매출액: 단위당 판매가 100,000원에 실제 판매수량 50개를 곱한다. 매출액은 100,000원 × 50개 = 5,000,000원이다.

매출원가: 위탁자가 부담한 적송운임 40,000원은 상품을 판매할 장소까지 운반하는 원가이므로 **적송상품 100개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단위당 운임은 $\frac{40,000}{100}$ = 400원이고, 단위당 상품원가는 60,000원 + 400원 = 60,400원이다. 판매된 50개의 매출원가는 60,400원 × 50개 = 3,020,000원이다. 판매되지 않은 50개의 원가 3,020,000원은 기말재고로 남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판매수수료: 판매된 수량에 대해 단위당 10,000원을 지급하므로, 판매수수료는 10,000원 × 50개 = 500,000원이다. 이 금액은 **판매비로 당기비용 처리**한다.

당기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수수료를 차감한다. 5,000,000원 − 3,020,000원 − 500,000원 = 1,48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20×1년 자본과 관련한 다음 정보를 이용할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익잉여금은?

◯ 20×1년 기초 이익잉여금 ₩200
◯ 2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현금 ₩100 배당 결의와 함께 이익준비금 ₩10과 배당평균적립금 ₩20 적립 결의
◯ 6월 30일: 전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장부금액 ₩30의 자기주식을 ₩32에 매각
◯ 20×1년 당기순이익 ₩250

① ₩320
② ₩350
③ ₩352
④ ₩4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익준비금과 배당평균적립금의 적립은 **이익잉여금 내부 대체**이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므로 이익잉여금을 늘리지 않는다. 기말 이익잉여금은 기초 금액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현금배당만 차감**한 200 + 250 − 100 = 35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초 금액과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 누적한 금액이다. 20×1년 기초 이익잉여금 200원에 당기순이익 250원을 더하면, 배당을 반영하기 전 금액은 450원이다.

2월 25일 현금배당: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100원을 결의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미지급배당금이 발생한다.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배당 결의 시점에 차감하므로, 450 − 100 = 350원이 된다.

이익준비금과 배당평균적립금: 이익준비금 10원과 배당평균적립금 20원은 모두 이익잉여금의 구성 항목이다. 적립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줄지만 해당 적립금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6월 30일 자기주식 매각: 장부금액 30원의 자기주식을 32원에 매각하여 생긴 차액 2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이다. 이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에 가산하지 않는다.

기말 이익잉여금: 기초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현금배당 = 200 + 250 − 100 = 350원이다. 따라서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익잉여금은 ②의 ₩350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초 차량 A(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적용)를 ₩900,000에 매입하면서 취득세 ₩90,000을 납부하였고,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공채를 액면가 ₩100,000(현재가치 ₩90,000)에 매입하였다. 차량 A를 취득한 후 바로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을 때, 차량 A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 감가상각비는?

① ₩300,000

② ₩324,000

③ ₩400,000

④ ₩432,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는 매입액과 현재가치의 차이 10,000원만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하므로 취득원가는 1,00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의 **2차 연도 상각률**은 $\frac{3}{10}$이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300,000원이다.

계산 과정

차량 취득원가: 차량 매입대금과 취득세에,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더한다. 국공채 매입액 100,000원 중 현재가치 90,000원은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차액 100,000 − 90,000 = 10,000원은 차량 취득에 따른 추가 부담이므로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차량 취득원가는 900,000 + 90,000 + 10,000 = 1,00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의 상각률: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매년 감소하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다. 20×1년 초 취득하여 즉시 사용했으므로 20×2년은 **사용 2차 연도**이며, 해당 연도를 포함한 잔여내용연수는 3년이다. 따라서 20×2년 상각률은 $\frac{3}{10}$이다.

20×2년 감가상각비: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0,000 − 0 = 1,000,000원이다. 이 금액에 2차 연도 상각률을 적용하면 $1{,}000{,}000 \times \frac{3}{10} = 30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은 **기초 장부금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대상금액**에 해당 연도의 상각률을 곱한다.

따라서 20×2년 감가상각비는 30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초 채무상품 A를 ₩950,00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채무상품 A로부터 매년 말 ₩80,000의 현금이자를 수령하며, 취득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10%이다. 채무상품 A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80,000이며, 20×2년 초 해당 채무상품 A의 50%를 ₩490,000에 처분하였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① 처분손실 ₩7,500

② 처분손익 ₩0

③ 처분이익 ₩7,500

④ 처분이익 ₩1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구한다. 20×1년 말 장부금액 965,000원의 50%인 482,500원보다 처분대금이 7,500원 많으므로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측정 기준: 채무상품 A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므로, 취득금액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을 더하고 수령한 현금이자를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계산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 980,000원으로 **장부금액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20×1년 이자수익과 장부금액: 이자수익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950,000 × 10% = 95,000원이다. 이 중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80,000원이므로, 차액 15,000원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연말 장부금액은 950,000 + 95,000 − 80,000 = 965,000원이다.

처분 부분의 장부금액: 20×2년 초에 처분하므로 직전 연말 장부금액을 사용한다. 전체의 50%를 처분하였으므로 제거할 장부금액은 965,000 × 50% = 482,500원이다. 전체 장부금액이 아니라 **처분한 부분의 장부금액**을 처분대금과 비교한다.

처분손익: 처분대금에서 처분 부분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면 490,000 − 482,500 = 7,500원이다. 처분대금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처분이익 7,500원을 인식하며,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인식'의 단계를 적용한다.

③ 거래가격 산정 시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하며, 변동대가,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④ 고객에게 약속한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며,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가 잘못되었다.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려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상업적 실질과 지급조건 식별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려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회수 가능성은 지급기일에 고객이 그 대가를 지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 승인과 의무 이행 확약, 각 당사자의 권리 식별, 지급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 가능성 요건을 생략할 수 없다.

② O: 수익인식에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인식'의 5단계 모형을 적용한다.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뜻한다. 각 약속을 식별한 뒤 그에 배분할 금액을 정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구조이다.

③ O: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기업 자신의 몫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변동대가와 그 추정치의 제약,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④ O: 기업이 약속한 자산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의 이전 여부는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남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면 수익도 그 이행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한 시점에 이행되면 그 시점에 인식한다.

NoteBase

문 12.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②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③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④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원금을 갚는 현금유출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자산을 사용하는 데 드는 일반적인 영업지출과 달리, 리스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된 수익 창출 활동과 투자활동·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이다. 현금흐름은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① O: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라는 점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 재고자산의 매매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금융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② O: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종업원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은 영업활동 현금유출에 해당한다. 기업의 **수익 창출에 필요한 노동용역**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종업원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지만으로 분류가 달라지지 않는다.

③ O: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으로 받는 현금은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다. 기업의 **수익 창출 활동에서 받는 대가**이므로, 상품 판매대금이나 용역 제공대금처럼 영업활동에 포함된다.

④ X: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리스부채 상환은 부채의 원금을 줄이는 지급을 뜻하며, 차입금 원금 상환처럼 자금 조달로 생긴 부채를 갚는 거래이다. 리스자산을 영업에 사용하더라도 원금 상환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③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예외 없이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④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매년 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미수세금 중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미수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은 미수세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한다. 대손충당금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이를 **미수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 X: 제47조에 따라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재고가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개별법·이동평균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총평균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서 주석 공시가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③ X: 제50조 제2항은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도시철도·하천부속시설 등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예외 없이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제48조에 따라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목별 총평균법은 같은 종목의 취득금액을 평균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원가 산정 부분은 맞지만, 매년 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다고 한 부분은 규칙의 평가 원칙과 다르다.

NoteBase

문 14. 당기 현금흐름표상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54,000이고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은 ₩31,000이다.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채권손상차손이 ₩500일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면? (단, 매출채권(순액)은 매출채권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과목	기초	기말
매출채권(순액)	₩7,000	₩9,500
매입채무	4,000	6,000
재고자산	12,000	9,000

① ₩20,500

② ₩21,000

③ ₩25,000

④ ₩31,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매출액으로 바꿀 때는 순매출채권 증가액뿐 아니라 **손상차손 500원도 가산**한다. 매출액 57,000원에서 매출원가 36,000원을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은 **21,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액 계산: 표의 매출채권(순액)은 기초 7,000원에서 기말 9,500원으로 2,500원 증가했다. 매출은 채권을 늘리고 현금 회수는 채권을 줄인다. 그런데 순매출채권은 **현금 회수 없이도 손상차손만큼 감소**하므로, 현금유입액에 순매출채권 증가액과 손상차손을 모두 더해야 매출액이 된다.
매출액 = 54,000 + (9,500 − 7,000) + 500 = 57,000원

2. 당기 매입액 계산: 매입채무는 기초 4,000원에서 기말 6,000원으로 2,000원 증가했다. 이는 당기 매입액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보다 2,000원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금유출액에 **매입채무 증가액을 가산**한다.
당기 매입액 = 31,000 + (6,000 − 4,000) = 33,000원

3. 매출원가 계산: 기초 재고자산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가 된다. 여기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기말 재고자산을 차감한다. 재고자산은 기초 12,000원, 기말 9,000원이다.
매출원가 = 12,000 + 33,000 − 9,000 = 36,000원

4. 매출총이익 계산: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매출채권손상차손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앞에서는 현금유입액으로부터 매출액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했다.
매출총이익 = 57,000 − 36,000 = 21,000원

이는 ②의 21,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제외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고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다르기 때문이다.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유형별 재무제표는 같은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해당 유형 안의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여러 회계실체를 하나의 보고단위로 묶으므로 그 안에서 주고받은 거래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한다. **기금회계도 통합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내부거래도 상계한다.

② O: 같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그 유형 안에서 이루어진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유형 전체를 하나의 보고단위로 보므로 그 안의 회계실체 사이에서 주고받은 거래의 영향을 제거하여 표시한다.

③ X: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에서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개별 회계실체 자체의 거래 내역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회계실체와 거래하였더라도 외부 회계실체와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선지의 상계 여부와 외부거래와 다르게 처리한다는 설명이 모두 잘못되었다.

④ X: 같은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 및 계속성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러나 제5조제4호의 계속성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변경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회계변경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9조제4항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당기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장부 마감 전에 이를 수정하였다.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000이라고 할 때, 오류수정 후 당기순손익은?

◯ 당기 7월 1일 수령한 선수임대료 ₩120,000을 전액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임대기간은 당기 7월 1일부터 차기 6월 30일까지이다)
◯ 당기 발생 미지급급여 ₩100,000을 누락하고 인식하지 않았다.
◯ 당기 발생 미수이자 ₩40,000을 누락하고 인식하지 않았다.
◯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당기 12월 29일 선적하여 차기 1월 5일 인도예정인 상품에 대해 당기 12월 29일에 매출 ₩200,000과 매출원가 ₩150,000을 인식하였다.

① 당기순이익 ₩30,000
② 당기순이익 ₩70,000
③ 당기순손실 ₩70,000
④ 당기순손실 ₩1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오류를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총 170,000원 감소하므로, 수정 전 이익 100,000원은 **당기순손실 70,000원**으로 바뀐다. FOB 도착지 인도조건의 상품은 당기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함께 취소**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익과 비용은 현금을 주고받은 시점이 아니라 당기에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인식한다. 각 오류를 수정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더하고, 감소하면 뺀다.

선수임대료: 임대료수익은 현금 수령액이 아니라 **당기에 임대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식한다. 전체 임대기간 12개월 중 당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개월이므로, 당기 수익은 $120{,}000 \times \frac{6}{12} = 60{,}000$원이다. 이미 수익으로 계상한 120,000원 중 차기분 60,000원은 선수임대료라는 부채로 돌려야 하므로 당기순이익이 60,000원 감소한다.

미지급급여: 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급여는 당기 비용**이다. 누락한 급여비용과 미지급급여 100,000원을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이 100,000원 감소한다.

미수이자: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이자는 당기 수익**이다. 누락한 미수이자와 이자수익 40,000원을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이 40,000원 증가한다.

FOB 도착지 인도조건: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인도되는 때**에 매출을 인식한다. 당기 12월 29일에는 선적만 했고 인도는 차기 1월 5일 예정이므로, 당기 말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잘못 인식한 매출 200,000원을 취소하면 이익이 200,000원 감소하고, 매출원가 150,000원을 취소하여 재고자산으로 되돌리면 이익이 150,000원 증가한다. 이 거래의 순수정효과는 −200,000 + 150,000 = −50,000원이다.

오류수정 후 당기순손익: 수정 전 당기순이익에 각 오류의 수정효과를 더하면 100,000 − 60,000 − 100,000 + 40,000 − 50,000 = −70,000원이다. 음수이므로 당기순손실 70,000원이며,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단위당 판매가격은 ₩500이며, 20×1년 매출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이 30%라고 할 때, (가)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나) 세후목표이익 ₩70,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없다)

매출액	₩600,000
변동원가	360,000
고정원가	200,000

① (가): 1,000개 (나): ₩675,000

② (가): 1,000개 (나): ₩750,000

③ (가): 1,200개 (나): ₩675,000

④ (가): 1,200개 (나): ₩75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원**이므로 고정원가 200,000원을 회수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000개이다. 세후 70,000원을 남기려면 **세전이익 100,000원**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할 매출액은 75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공헌이익: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으므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고, 제시된 원가를 해당 기간의 매출과 대응시킨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얻는 데 쓰인다. 자료의 공헌이익은 600,000 − 360,000 = 240,000원이고, 공헌이익률은 $\frac{240,000}{600,000} = 0.4$, 즉 40%이다. 따라서 제품을 한 개 팔 때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500 \times 0.4 = 200$원이다.

(가) 손익분기점 판매량: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익이 0이므로 **총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같아야** 한다.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면 필요한 판매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frac{200,000}{200} = 1,000$개이다.

세전목표이익: 법인세율이 30%이므로 세전이익 중 70%가 세후이익으로 남는다. 따라서 세후목표이익 70,000원을 달성하려면 이를 **1 − 법인세율로 나누어** 세전목표이익으로 환산해야 한다. 세전목표이익은 $\frac{70,000}{1-0.3} = 100,000$원이다.

(나) 목표 매출액: 매출액의 40%가 공헌이익이 되므로, 고정원가 200,000원과 세전목표이익 100,000원을 합한 **필요 공헌이익 300,000원**을 공헌이익률로 나눈다. 목표 매출액은 $\frac{200,000+100,000}{0.4} = 750,000$원이다.

따라서 (가) 1,000개와 (나) 750,000원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기초·기말 재고에 대한 자료이다. 20×1년도 직접재료 매입액은 ₩125,000이고,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였으며, 매출원가는 ₩340,000이었다. (주)한국의 20×1년 기본원가(기초원가, prime cost)는?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직접재료	₩20,000	₩25,000
재공품	35,000	30,000
제품	100,000	110,000

① ₩150,000

② ₩195,000

③ ₩225,000

④ ₩27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이다. 재고 증감을 반영한 직접재료원가 120,000원과 직접노무원가 150,000원을 합하면 270,000원이며, 제조간접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본원가(기초원가, prime cost)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직접재료·재공품·제품의 기초 및 기말 재고를 반영하여 당기에 투입된 원가를 구한다. 아래 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1. 직접재료원가: 기초 직접재료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은 직접재료를 빼면 **당기에 사용한 직접재료원가**가 된다.
직접재료원가 = 20,000 + 125,000 − 25,000 = 120,000원.

2.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제품에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된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매출원가에 기말제품을 더하고 기초제품을 빼서 구한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340,000 + 110,000 − 100,000 = 350,000원.

3.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에는 기초재공품의 원가가 포함되고, 기말재공품에 남은 원가는 제외되어 있다. **당기에 새로 투입한 제조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재공품을 빼고 기말재공품을 더한다.
당기총제조원가 = 350,000 − 35,000 + 30,000 = 345,000원.

4. 직접노무원가: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직접재료원가를 뺀 345,000 − 120,000 = 225,000원은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직접노무원가를 x원이라 하면 제조간접원가는 $0.5x$원이므로, 두 원가의 합계는 **직접노무원가의 1.5배**이다.
$1.5x = 225{,}000$
$x = \frac{225{,}000}{1.5} = 150{,}000$
따라서 직접노무원가는 150,000원이다.

5. 기본원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만 합하므로 120,000 + 150,000 = 270,000원이다. 이는 ④의 27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보급형과 고급형 두 가지 모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를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한다. (주)한국은 당기에 보급형 800개, 고급형 100개를 생산·판매하였으며, 제조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고급형 모델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없다)

구분		보급형	고급형
직접재료원가		₩32,000	₩5,000
직접노무원가		24,000	3,500
제조간접원가	작업준비	₩6,000	
	제품검사	9,000	
	합계	₩15,000	

활동	원가동인	활동사용량		
		보급형	고급형	계
작업준비	준비횟수	20회	10회	30회
제품검사	검사시간	100시간	100시간	200시간

① ₩100

② ₩120

③ ₩135

④ ₩15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활동별 사용량에 따라 고급형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는 6,500원이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더한 총제조원가 15,000원을 **고급형 생산량 100개**로 나누면 단위당 제조원가는 **15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모은 뒤, 각 제품이 사용한 원가동인의 양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에서는 작업준비원가는 준비횟수로, 제품검사원가는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활동별 배부율을 구한다.

작업준비원가: 총 준비횟수는 보급형 20회와 고급형 10회를 합한 30회이다. 1회당 배부율은 $\frac{6,000}{30} = 200$원/회이다. 고급형은 준비활동을 10회 사용했으므로, 고급형에 배부할 작업준비원가는 $200 \times 10 = 2,000$원이다.

제품검사원가: 총 검사시간은 보급형 100시간과 고급형 100시간을 합한 200시간이다. 1시간당 배부율은 $\frac{9,000}{200} = 45$원/시간이다. 고급형은 검사활동을 100시간 사용했으므로, 고급형에 배부할 제품검사원가는 $45 \times 100 = 4,500$원이다. 두 모델의 생산량은 다르지만 **검사시간이 같으므로 검사원가는 같은 금액**이 배부된다.

고급형 총제조원가: 고급형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는 2,000 + 4,500 = 6,500원이다. 여기에 고급형의 직접재료원가 5,000원과 직접노무원가 3,500원을 더하면 총제조원가는 5,000 + 3,500 + 6,500 = 15,000원이다.

고급형 단위당 제조원가: 기초·기말재고가 없고 고급형 생산량은 100개이므로, **고급형 총제조원가를 고급형 생산량으로** 나눈다. $\frac{15,000}{100} = 150$원/개로, ④의 15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당기에 손톱깎이 세트 1,000단위를 생산·판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간 최대 조업능력은 1,200단위이다. 손톱깎이 세트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400이며, 총 고정원가는 ₩110,000이다. 한편, (주)한국은 당기에 해외 바이어로부터 1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으며, 이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50의 운송원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특별주문의 수락이 (주)한국의 당기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35,000 감소

② ₩5,000 감소

③ ₩5,000 증가

④ ₩20,000 증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특별주문은 유휴 조업능력 안에서 생산할 수 있으므로 기존 판매를 줄일 필요가 없다. 추가 운송원가까지 뺀 **단위당 이익 증가액은 50원**이므로, 100단위를 수락하면 당기이익이 5,000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조업능력 확인: 연간 최대 조업능력은 1,200단위이고 기존 생산·판매계획은 1,000단위이므로, 유휴 조업능력은 1,200 − 1,000 = 200단위이다. 특별주문 100단위는 이 범위 안에 있어 **기존 판매를 포기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판매에서 얻을 이익을 잃는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수익과 원가: 특별주문 수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과 원가만 비교한다. 특별주문의 단위당 추가수익은 600원이며, 단위당 추가원가는 변동원가 400원과 운송원가 150원을 합한 550원이다. 기존 판매가격 1,000원은 특별주문의 수익 계산에 쓰지 않는다.

고정원가 처리: 총 고정원가 110,000원은 특별주문을 수락해도 **변하지 않는 원가**이므로 이익 증감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고정원가를 제품에 배분하더라도 그 배분액이 이번 주문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당기이익 변화: 단위당 이익 증가액은 600 − 400 − 150 = 50원이다. 여기에 특별주문 수량 100단위를 곱하면 50원 × 100단위 = 5,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이익은 5,000원 증가하며, 이는 ③의 '₩5,000 증가'에 해당한다.

NoteBase